

일부 초등학교 교사의 구강건강 및 구강보건교육 인식에 대한 조사

최미혜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A study on awareness of oral health and oral health educ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Mi-Hye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eonbuk Science college

Received : 12 February, 2013
Revised : 30 April, 2013
Accepted : 5 June, 2013

Corresponding Author

Mi-Hye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eonbuk science college

509 Jeongeupsaro, Jeongeup-city

Jeonbuk 580-712, Korea.

Tel : +82-63-530-9257

+82-10-8669-7748

Fax : +82-63-532-3768

E-mail : purism9669@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oral health and oral health education by position and teacher career in an effort to provide information on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education.

Methods :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3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llabuk-do from July 2 to 19, 2012. 29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3.0.

Results : As for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and concern for oral health by teacher career, the teachers who had a less than six years of career considered themselves to be unhealthier and were mo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Regarding oral health knowledge by position and career, those who were homeroom teachers and who had a less than five years of career had a better knowledge on oral health. Concerning concern for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the homeroom teachers were mo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education and were better cognizant of the necessity of that education. In relation to teaching ability for oral health, the homeroom teachers found themselves to be more capable of providing oral health education than the non-homeroom teachers.

Conclusions : The improve concern and recognition of oral health for the members,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s to develop oral health education and policy.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 oral health, oral health education

색인 : 구강건강,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교사

서론

초등학교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이 일어나며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많은 아동들이 치아우식으로 인하여 동통 및 저작 장애를 겪고 있고, 정상적인 영구치열 완성에도 방해받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8세의 유치우식경험자율은 77.3%이고, 10

세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46.2%, 12세는 60.5%, 15세는 74.6%로²⁾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치아우식증이 한번 발생하면 저절로 낫는 법 없이 계속 진행되는 누적적 질환임을 고려할 때, 질병에 이환되기 전에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건강관리능력이 중요하다³⁾.

아동은 치아우식증의 감수성이 예민한데 비해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반복적

인 경험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⁴⁾.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구강보건행동은 일생동안 구강건강 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이 시기의 구강보건 습관 형성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강건강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⁵⁾.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동시에 학교교육에 자녀를 전적으로 일임하려는 학부모가 증대되는 사회적 상황⁶⁾과 함께 일과시간의 절반가량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에게 교사의 교육적 역할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목 수업과 생활지도의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함께 보내게 되므로 아동의 행동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사의 교육적 지식과 경험은 아동의 구강보건 습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학교보건교육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협의가 부족하며, 학업위주의 교육으로 건강유지와 관련된 건강증진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⁷⁾, 한정된 교육내용과 다양하지 못한 매체, 교육시간의 부족 등으로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⁸⁾, 아동의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대부분이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다^{5,9)}.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이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이며 특히 Boyer¹⁰⁾와 Kenny¹¹⁾는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학급담임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담임교사들은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자이며, 모범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건강유지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강보건담당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크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령기의 담임교사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으며, 교사의 직책과 교육경력에 따라 구강건강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전라북도지역에 소속되어있는 초등학교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 269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 조사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교사의 구강건강인식-지식, 구강보건교육내용 및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도 등 총 20문항을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보건교육내용은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지식도와 관련한 점수는 Likert 4점 척도를 '높다(매우 높다, 높다)', '낮다(낮다, 매우 낮다)'의 2점 척도로 재범주화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3.0(SPSS Inc., Chi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보건교육내용, 구강병기인 활동제한 경험도는 교사의 직책과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에 따르는 교차분석법을 실시하였다.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지식도, 구강보건교육관심도, 구강보건교육필요도와와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5$ 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86.1%로 높았고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가 59.5%로 높았다. 연령은 30~34세와 40세 이상이 29.4%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 21.3%, 35~39세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인 교사가 76.4%로 대학원 이상인 교사 23.6% 보다 높았다. 직책은 담임교사가 75.0%로 비담임교사 25.0% 보다 높았고 교육경력은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54.4%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관심도 및 구강건강지식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에 대한 질문에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와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모두 '건강하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의 비율이 70.1%로 5년 이하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41	13.9
	Female	255	86.1
Marital status	Single	120	40.5
	Married	176	59.5
Age	30 under	63	21.3
	30 ~ 34	87	29.4
	35 ~ 39	59	19.9
	40 over	87	29.4
Education background	University graduate	226	76.4
	Graduate school	70	23.6
Position	Homeroom teacher	222	75.0
	Non-homeroom teacher	74	25.0
Education career	≤5 years	135	45.6
	6 years≤	161	54.4
Total		296	100.0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29.9%)의 응답비율 보다 약 2배 이상 높았고($p<0.05$), 구강건강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응답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63.2%)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36.8%) 보다 높았다($p<0.01$).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도를 묻는 질문에 직책에 따른 차이에서 구강건강지식도가 '낮다'고 인식한 담임교사의 비율이 높았고($p<0.05$),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p<0.001$) (Table 2).

3.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도

구강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73.3%)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26.7%) 보다 경험률이 높았고, 구강병으로 인한 직장생활 지장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도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70.8%)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29.2%) 보다 경험률이 높았다($p<0.001$) (Table 3).

Table 2.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concern, oral health knowledge

Item	Position		p-value	Education career		p-value
	Homeroom teacher	Non-homeroom teacher		≤5 years	6 years≤	
Oral health importance						
high	70(79.5)	18(20.5)	0.296	38(43.2)	50(56.8)	0.860
moderate	121(71.6)	48(28.4)		79(46.7)	90(53.3)	
low	31(79.5)	8(20.5)		18(46.2)	21(53.8)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healthy	87(79.8)	22(20.2)	0.296	59(54.1)	50(45.9)	0.004**
moderate	81(73.6)	29(26.4)		53(48.2)	57(51.8)	
unhealthy	54(70.1)	23(29.9)		23(29.9)	54(70.1)	
Oral health concern						
high	106(75.2)	35(24.8)	1.000	78(55.3)	63(44.7)	0.002**
low	116(74.8)	39(25.2)		57(36.8)	98(63.2)	
Oral health knowledge						
high	163(72.1)	63(27.9)	0.041*	125(55.3)	101(44.7)	<0.001***
low	59(84.3)	11(15.7)		10(14.3)	60(85.7)	

* $p<0.05$, ** $p<0.01$, *** $p<0.001$

Table 3. Experience of being disturbed by an oral disease in doing something

Item	Position		p-value	Education career		p-value
	Homeroom teacher	Non-homeroom teacher		≤5 years	6 years≤	
Being disturbed in daily routine life or not						
Yes	111(76,0)	35(24,0)	0,788	39(26,7)	107(73,3)	<0,001***
No	111(74,0)	39(26,0)		96(64,0)	54(36,0)	
Being disturbed at work or not						
Yes	86(71,7)	34(28,3)	0,278	35(29,2)	85(70,8)	<0,001***
No	136(77,3)	40(22,7)		100(56,8)	76(43,2)	

*** p<0,001

4. 구강보건교육 관심 및 필요·참석의향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직책에 따른 차이에서 답임교사(77.0%)가 비답임교사(23.0%) 보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구강보건교육의 필요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답임교사(70.5%)가 비답임교사(29.5%) 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p<0.05). 구강보건교육 세미나 참석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87.5%가 '비참석'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높아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 12.5% 보다 약 7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p<0,001)(Table 4).

5. 구강보건교육 경험 및 구강보건교육 지도능력

구강보건교육 경험 및 구강보건교육 지도능력에 대한 교사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묻는 질문에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78.9%)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21.1%)보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p<0.001). 또 구강보건교육 지도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지도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인식한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88.5%)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11.5%)보다 많았다(p<0.05).

6. 구강보건교육 실시유무 및 교과내용포함 필요

현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67.1%)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32.9%) 보다 실천도가 높았고(p<0.05),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내용을 교과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직책에 따른

Table 4. Oral health education concern and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an oral health education seminar

Item	Position		p-value	Education career		p-value
	Homeroom teacher	Non-homeroom teacher		≤5 years	6 years≤	
Oral health education concern						
high	57(77,0)	17(23,0)	0,014**	34(45,9)	40(54,1)	0,143
moderate	73(84,9)	13(15,1)		32(37,2)	54(62,8)	
low	92(67,6)	44(32,4)		69(50,7)	67(49,3)	
Needs of oral health education						
Necessary	146(70,5)	61(29,5)	0,017**	93(44,9)	114(55,1)	0,625
Moderate	58(87,9)	8(12,1)		33(50,0)	33(50,0)	
Unnecessary	18(78,3)	5(21,7)		9(39,1)	14(60,9)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an oral health education seminar						
Will participate	53(75,7)	17(24,3)	0,617	40(57,1)	30(42,9)	0,001**
Will participate if possible	153(75,7)	49(24,3)		92(45,5)	110(54,5)	
Won't participate	16(66,7)	8(33,3)		3(12,5)	21(87,5)	

** p<0,01

Table 5.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the level of teaching ability for oral health

Item	Position		p-value	Education career		p-value
	Homeroom teacher	Non-homeroom teacher		≤5 years	6 years≤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47(82,5)	10(17,5)	0,175	12(21,1)	45(78,9)	<0,001***
No	175(73,2)	64(26,8)		123(51,5)	116(48,5)	
The level of teachin ability for oral health						
Capable	46(88,5)	6(11,5)	0,011*	24(46,2)	28(53,8)	0,080
Moderate	83(77,6)	24(22,4)		40(37,4)	67(62,6)	
Not Capable	93(67,9)	44(32,1)		71(51,8)	66(48,2)	

* p < 0,05, *** p < 0,001

차이에서는 담임교사(68.3%)(p<0.01)가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54.5%)(p<0.05)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Table 6>.

7.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지식도, 구강보건교육 관심도, 구강보건교육 필요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지식도, 구강보

건교육 관심도, 구강보건교육 필요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구강건강관심도는 구강건강지식도(r=0.499, p<0.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지식도는 구강보건교육 관심도(r=-0.221, p<0.001)와 구강보건교육 필요도(r=-0.332,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구강건강지식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Table 6. Whether oral health educaion is conducted or not at present & the necessity of offering oral health education as one of regular subjects

Item	Position		p-value	Education career		p-value
	Homeroom teacher	Non-homeroom teacher		≤5 years	6 years≤	
Whether oral health educaion is conducted or not at present						
Yes	55(75,3)	18(24,7)	1,000	24(32,9)	49(67,1)	0,015*
No	167(74,9)	56(25,1)		111(49,8)	112(50,2)	
The necessity of offering oral health education as one of regular subjects						
Necessary	129(68,3)	60(31,7)	0,002**	86(45,5)	103(54,5)	0,011*
Moderate	69(87,3)	10(12,7)		43(54,4)	36(45,6)	
Unnecessary	24(85,7)	4(14,3)		6(21,4)	22(78,6)	

* p < 0,05, ** p < 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concer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education concern, needs of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concer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education concern	Needs of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concern	1			
Oral health knowledge	0,499**	1		
Oral health education concern	-0,377**	-0,221**	1	
Needs of oral health education	-0,332**	-0,197**	0,249**	1

**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t α =0,01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학교구강보건은 학교인구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려는 체계적 교육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구강보건 조직기구는 아직 없지만 학교구강보건실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파견된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에 의해 주기적으로 학교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¹²⁾.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관리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담임교사를 통한 구강건강증진방법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초등학교의 양호교사 및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연구¹³⁻¹⁶⁾들이 있었지만 교사의 직책과 교육경력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구강보건교육의 인식에 대한 비교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기에 이를 통해 학교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아동에게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여교사(86.1%)는 남교사(13.9%)보다 많았고 이것은 최와 류¹⁷⁾, 유¹⁸⁾의 연구조사에서 보인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초등학교 아동들의 교육이 여교사에 편중됨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학생의 교육대학 입학률이 70%를 넘고 2010년에는 초등학교 교사 중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5.1%로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거의 8명이 여교사인 현실¹⁹⁾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Lang 등²⁰⁾의 보고처럼 본 연구결과에서도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지식도에서 교육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교육경력이 짧을수록 구강보건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구강건강지식도도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지식도도 높게 평가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 지도능력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인 교사가 5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지도능력이 더 충분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구강건강지식도와 구강보건교육 지도능력에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²¹⁾

의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교사의 생활지도 및 상담영역에 대해 교육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지도능력 및 상담에 대한 능력이 낮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연관 지을 수 있겠다.

또 연구결과에서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지식도는 직책에 따른 차이에서 담임교사가 비담임교사보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도도 높게 평가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담임이라는 직책을 통해 교사가 아동들의 생활전면에 관여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작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더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담임의 관심여부에 따라 수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지식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필요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교사 스스로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필요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구강건강지식도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에 대한 결과를 통해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구강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대한 직장경험이 많았다. 이 등²²⁾의 보고에 따르면 구강병 예방에 대한 자기 확신이 적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활동제한의 경험이 높다고 하였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직책이나 교육경력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인 교사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낮게 나타나 경력의 세분화를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심도에 대한 차이와 구강건강과 관련한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은 교과를 가르치는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조성하는 교사의 인품이나 언어, 태도,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학습자들의 교육활동을 조성하는 것이며, 아동의 전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²³⁾.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는 아동들의 생활전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안내자와 본보기가 되기에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활발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아동들의

구강건강유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학술적으로 인정된 구강건강관리 인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²⁴⁾, 이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경력에 따라 단계별 구강보건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구강건강지식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사항 및 구체적인 구강보건교육 필요내용 등의 반영이 부족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책과 교육경력의 차이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전북 일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296부를 분석에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70.1%)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보다 많았고, 구강건강관심도도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구강건강지식도는 직책에 따른 차이에서는 담임교사가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낮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2. 구강병에 의한 일상생활 지장 및 직장생활 지장에 대한 경험은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5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많았다.
3.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과 구강보건교육 필요도는 담임교사가 비담임 교사 보다 관심이 높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구강보건교육 세미나 참석의향은 교육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의 참석의향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구강보건교육 지도능력은 직책에 따른 차이에서 담임교사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구강보건교육의 교과내용 필요도에서는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구강건강관심도는 구강건강지식도와 양(+)의 상관관계

($r=0.499$)를 나타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지식도는 구강보건교육 관심도($r=-0.377$)와 구강보건교육 필요도($r=-0.332$)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구강건강지식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교육 관심도 및 필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초등학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력에 따른 수준별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Kim YN, Song YS, Kim YS. Effects of mother's oral health care behaviors on dental caries in primary school childre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145-56.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National Survey of Oral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45-61.
3. Huew R, Waterhouse PJ, Moynihan PJ, Maguire A. Prevalence and severity of dental caries in Libyan schoolchildren. *Int Dent J* 2011; 61(4): 217-23.
4. Jeon HJ, Song KB, Lee SK. The improvement of knowledge and management capability of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education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School Health* 1999; 12(2): 295-303.
5. Chway GI, Kwak KH, Chung SC, Kim CY.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seoul. *J Korean Soc Health Educ* 1990; 7(1): 39-46.
6. Kang SH.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s in the role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J Elementary Educ Stu* 2010; 17(2): 1-25.
7. Kim JY. A study on game-based e-learning contents design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Master's thesis]. Chuncheon: Univ. of KangWon National, 2011.
8. Choi BA, Chang CG. Development of web-Based courseware in oral health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Soc Health Educ* 2003; 20(2): 1-18.
9. Song KB, Kim DH, Shin YL.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taegu and kyung-pook province. *J Kyungpook Dent* 1993; 10(1): 33-45.
10. Boyer EM. Classroom teacher's perceived role in dental health education. *J Public Health Dent* 1976; 36(4): 237-43.
11. Kenny JB.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schools in affecting dental health status a potential yet unrealized. *J Public Health Dent* 1979; 39(4): 262-7.

12. Kang BW, Gkuk JS, Kwon SJ, Kwon HS, Kim MJ, Kim SJ, et al., Public oral health, Seoul: Komoonsa; 2011: 44-52.
13. Lee JH, Jeon ES, Survey on oral health recognition level and support of benefited school teachers by the operating period of incremental school oral health program, J Korea Contents Ass 2010; 10(7): 244-52.
14. Jang KA, Hwang IC,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its education recognizance of childcare teacher, J Korea Contents Ass 2009; 9(12): 735-41.
15. Chun JH, Rhu YH, Lee SH, Attitudes and opinions about school oral health care among health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in busan, J of Korean Soc School Health 2002; 15(2): 205-18.
16. Kim JY, Jung SC, Choi KR, Kwak KH,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seoul, J Korean Soc Health Edu 1990; 7(1): 39-46.
17. Choi SS, Ryu HG, A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level of home room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daegu area, J Korean Soc for School Health Educ 2008; 9(2): 105-18.
18. Yoo H, A study of oral health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daejeon[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11.
19. Park MH, Realiza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parents about elementary school teacher sex ratio imbalance[Master's thesis], Gyeonggi: Univ. of Gyeongin, 2011.
20. Lang P, Woolfolk MW, Faja BW,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Michigan, J Public Health Dent 1989; 49(1): 44-50.
21. Kim TR,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needs for the in-service training[Master's thesis], Busan: Univ. of Busan National Education, 2008.
22. Lee JS, Youn YM, Lee HS, Kim SN, Restricted activity with oral disease in a korean university student,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1; 25(3): 245-58.
23. Kang SH,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s in the role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J Elementary Educ 2010; 17(2): 1-25.
24. Chon JE, Choi Y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dental health care in the teacher of local children center,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4): 827-37.